

『 세계 최초의 신도시 수원(水原) 』

지리교육과 3학년 박경도

1. 위치

1) 수리적 위치

〈 수원시 수리적 위치 〉

단	지점	극점	직선거리
동 단	영통구 하동	동경 127° 05'	13.92km
서 단	권선구 금곡동	동경 126° 56'	
남 단	권선구 대왕교동	북위 37° 13'	14.02km
북 단	장안구 상광교동	북위 37° 21'	

출처: 수원시청

2) 관계적 위치



〈수원의 위치〉

수원은 우리나라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고, 동쪽은 용인시, 서쪽은 안산시, 남쪽은 화성시, 북쪽은 의왕시에 접한다. 평택항과 인천항,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고, 경부고속도로가 지난다. 서울특별시와 차로 1시간 거리이며, 대구와는 3시간30분 거리이다. 식수원은 다른 수도권지역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광주시의 팔당호를 사용한다.

2. 자연·인문환경

1) 자연환경

지형은 대체로 동북에서 서남 방향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중앙에는 팔달산(128m)이 솟아 있어 천연 공원을 이룬다. 북쪽에는 300m 내외의 광교산맥,

서쪽에는 여기산, 남동쪽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기후는 기온차가 심한 대륙성기후이며, 연평균기온 11℃, 1월 평균기온 -5.6℃, 8월 평균기온 26℃이며, 연평균강수량은 1327mm이다. 10월 초에 첫서리가 내리고 4월 하순에 마지막 서리가 내린다.

2) 인문환경

〈 수원시 인구(2008년 8월) 〉

내국인	외국인	합계
1,068,287	22,055	1,090,342

출처: 수원시청

인구는 약 110만명으로 울산광역시와 비슷하며 도시인구순위 8위이다. 외국인의 수가 인구규모가 비슷한 울산광역시의 두 배인 2만명이 거주한다. 이것은 수원시 전체인구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리에서 스치게 되는 50명중 1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¹⁾ 외국인수로 보면 영등포, 안산, 구로에 이은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원의 위치한 외국인학교와 산업근로자, 유학생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로 보인다. 수원에는 10여 개국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적으로는 중국인이 약 7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은 일찍부터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요지가 될 만큼 각종 교통시설이 발달해왔다. 경부선 철도가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경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신갈~안산 간 고속도로가 시 외곽을 지나고 있어 전국 각지로 손쉽게 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남부지역의 간선도로인 1번·42번·43번국도, 수원~인천 간 산업도로도 지난다. 1975년에 개통된 서울~수원 간 전철은 수원과 인근의 화성·오산·송탄까지 서울의 통근·통학권으로 만들었다. 한편, 1937년 개통된 수원과 인천 송도를 연결하는 수인선은 한국 유일의 협궤철도²⁾였으나, 경제성이 낮아 1995년 철거되었다.

교육은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경기대수원캠퍼스, 수원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서울대 농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부에도 많은 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수원외국인학교가 있다. 이곳은 연간 수업료가 천오백만원으로 외국고급인력 자녀교육 및 생활개선의 목적을 두고 있다.

신도시는 수원의 동쪽에 영통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이후 가장 큰 신도

1) 지방자치제도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각 시·군·구

2) 소형의 기관차나 차량을 사용하여 운용되는 철도

시)가 생겼으며, 서수원의 정자지구, 또 남쪽으로 동탄신도시가 생겨났다. 그리고 광고신도시가 2011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는 수원시의 인구와 발달의 도움을 줄 것이다.

3. 산업

1) 농업

황구지천·서호천·원천천 등 소하천 주변에 충적평야가 발달해 있고, 서호·일왕·원천·광고 저수지 등 수리시설이 일찍부터 완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업관련기관이 밀집해 있어 한국 농업의 핵심도시 역할을 해왔다. 채소·원예·축산 등 근교농업이 상당히 발달하였다.

2) 공업

1970년대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져 수도권 의 주요 공업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전자·섬유·화학·금속 등이 주요 업종이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입지해 있는 영통구 매탄동은 인접한 용인시 기흥읍과 함께 한국 전자산업의 핵심지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공장용지가 부족하여 수원시의 제조업체 증가 추세는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 규모별 기업체현황 〉

구분	계	대기업(300인이상)	중기업(300인미만)	소기업(50인이하)
기업체수	903	9	50	843
종업원수	45,909	31,401	4,940	9,568

출처: 수원시청

3) 삼성전자

- 수원시 영통구의 위치하고 있으며 1969년 설립되었다.
- 수원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 종업원수는 15,724명으로 수원시의 총종업원수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 매출액: 42조 5819억원(수원 11조1704억원 전체 매출액의 25.6%)
- 수출액 : 34조 2365억원(수원 6조 9400억원 전체 수출의 20.2%)

<읽을거리>**수원이 광역시가 아닌 이유...**

광역시는 보통 시의 인구가 100만 이상일 때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다. 하지만 인구가 100만이 넘으면 무조건 광역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요구되는 조건이 있다. 수원이 광역시가 아닌 이유로는

첫째, 경기도내 대도시의 집단 탈출이 있다. 만약 수원을 광역시로 승격시킬 경우 인구가 100만에 가까운 성남, 부천, 고양, 용인시 또한 광역시 승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수원의 경기도 탈출이 위 도시들의 연쇄탈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이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수원을 광역시로 승격시킬 경우 인구흡입력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이것은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과 상반될 수 있다.

셋째, 경기도와 주변지역들의 반발이 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 재정자립도가 80%를 상회하는 견실한 대도시인 수원을 승격시킬 경우 재정적 타격이 크게 된다. 광역시 승격의 필요한 본래의 해당 도시가 속해 있던 도(지사)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경기도의 재정약화는 낙후지역의 지원을 약화시켜 주변지역들도 반대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대구가 광역시 승격과 함께 분리된 이후 경기도·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는 64%에서 47%, 47.6%에서 24.4%로 각각 낮아졌다.

- 서울신문 -

< 참고문헌 >

- 심재덕 / 1998 /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산업도시로 조성 : 수원시

< 참고사이트 >

- 수원시청 <http://www.suwon.ne.kr>
-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g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기상청 <http://www.kma.go.kr>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